



영천신문

영천전문장례식장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054)332-4000 영천C앞 · 도동고개

제213호 2017년 8월 11일 금요일(음력 6월 20일)

www.영천신문.com

대표전화 054-332-2400 Fax 054-335-6600

(주)화진 매각, 설립 2개월 자본금 1억 (주)메타센스가 인수

[메타센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 신기술 기업



영천시 도남동에 소재한 지역 대표자동차부품업체인 (주)화진(대표 조만호)이 매각됐다. 화진의 경영권

을 넘겨받는 업체는 지난 5월에 설립된 자본금 1억원의 신생 에너지재생기업 '메타센스'(대표 백종훈)로 알려졌다.

지역과 재계소식통에 따르면 화진의 조만호씨 외 5인(화진은 지난달 7일 대표 지분 279만 3262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250만6738주 등 총 530만주를 583억원에 메타센스 외 4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 27일 1차 중도금인 240억원이 지급 완료되고 잔금 283억원은 오는 18일 경 지급예정인 것으로 있어 사실상 경영

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화진은 오는 21일 오전 9시 도남동 본사 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와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또 화진은 이날 새 경영진을 맞을 준비를 위해 회사 일부 정관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둔 메타센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시스템 등 생산 판매 기업으로 산업용 로봇과 화학제품 무역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폭넓은 사업영역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메타센스는 액화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기업인 '메타비스타'가 화진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

사(SPC)로 전해진다.

'메타비스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 출신으로 미국 에너지국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백종훈 대표와 보잉 출신 박시봉 최고 기술책임자 등이 지난 2015년 설립한 연구중심의 기술지주회사로 전해졌다.

메타센스가 화진을 인수하게 되면 화진의 수준 높은 표면처리기술 등을 응용해 고급차에 활용되어온 우드그레인 내장 열선 스티어링휠 등을 국내 자동차업체에 납품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메타센스는 이미 수소관련 분야에 다양한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라미네이트 복합재 등 수소 관련 신소재개발과 극저온 장비, 산업용 로봇 등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센스의 진행중인 초감도 수소센서 개발은 수소 제조 플랜트나 충전소,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영역에 활용이 가능해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진의 경영권 변경 소식을 접한 지역 산업 관계자는 "인수기업이 신생기업이지만 KAIST 등 국내 우수 연구진이 포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소관련 신기술, 극저온 연구, 산업용 로봇, 정밀기기 등 미래 우량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환경에도 새바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금호강 강변공원 산책, 낭패 당할 수 있다

가로등 사각지대와 우거진 숲 지날 때 경계해야

금호강변을 산책하면서 가로등은 켜져 있지만 잡풀과 나무 등 숲이 우거진 후미진 지역을 지날 때는 각별히 경계심을 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는 "지난 7월초 오후 7시 30분쯤에 조밭골 맞은편 금호강변 산책로를 걷다가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남편의 목살을 잡는 바람에 큰 낭패를 당했다"고 밝혔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건장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숲에서 뛰쳐나와 이유 없이 달려들고는 A씨 부부가 강하게 저항하자 곧바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금로동 영천로타리클럽 바로 뒷편 강변공원 산책로인 이곳은 50m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가로등 중간 지점에는 주변에 잡풀이 우거져있고 나무들이 뺨뺨하게 자라 컴컴하고 후미진 장소다. <사진>

이런 일이 있은 후 부터 이들 부부는 "아예 영천강변공원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관할 당국의 범죄 예방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다른 이웃 주민들도 "이곳 후미진 곳에 가끔씩 한 남성이 출몰해 산책 시민들을 자주 놀라게 하고 있

다"고 증언하고 있다.

A씨는 "영천시가 해당지역을 확인하고 순찰 또는 후미지역 가로등이 부족한 부분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필요적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영천강변공원 산책로(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설치돼 있지만 가로등 사각지대나 여름철 풀이 많이 자라 후미진 곳 등은 잡풀을 제거해 시민들의 산책환경을 정비하는 등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 영천시 해당 부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또 영천경찰서 COP(범죄예방진단팀, Crime Prevention Officer)는 영천시와 함께 해당지역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훈익 기자



▲원 내는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세워져 있지만 중간 부분은 잡풀과 우거진 숲 때문에 어둡고 후미져 있다.

[사고] 다음 신문은 본지 하계휴가관계로 쉽니다.

[사령] 命. 손훈익 기자 (2017년 8월 11일자)

2017년도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귀감이 되는 『2017년도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찾습니다.

■ 시상개요

- 시상일자 : 2017. 9. 29.(금) 예정 ※제15회 한약축제 개막식
- 장 소 : 한약축제 개막식 무대
- 시상인원 : 3명(3개 부문 각1명)

■ 추천요건 및 추천부문

- 추천일 현재 영천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경제, 문화·교육·체육, 사회봉사 등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추천부문 - 3개
 - 산업경제 : 농업, 임업, 상업, 광공업, 상공활동, 건설, 기술분야
 - 문화·교육·체육 : 교육, 학술, 인문과학, 예술, 언론, 체육, 문화분야
 - 사회봉사 : 사회사업, 봉사, 효행, 선행, 환경, 보건, 질서·치안분야

■ 추천제외

- 자랑스러운 시민상 기(既) 수상자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 기타 제외대상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 기준에 의함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 추천 및 접수처

- 추천기관 : 읍·면·동사무소, 영천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단체

- 접수기간 : 2017. 8. 1. ~ 8. 22.(22일간)

※ 추천서는 8. 22일까지 접수처 도착분(우편 소인) 유효

- 접 수 처 : 영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분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330-6104)으로 문의

지역 로타리, 상송 도로변 자연환경보호 활동

취빙쿨 및 잡풀 제거에 회원 20여명 동참



국제로타리 3630(영북)지구 8지역(영천·금호·영천중앙·영천목화·서영천·동영천)로타리클럽, 대표 최현호(회장) 및 회원들은

11일 오전 화북면 상송리 일대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취빙쿨 제거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8지역 공동봉사활동 취빙쿨제거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나무심기에 그치지 않고 심은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취빙쿨 제거사업으로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회원간 친목도모 일환이다.

최현호 대표는 "바쁜시간 함께 해준 6개 클럽 회장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정성이 푸른 영천을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날 공동 행사에는 지역 로타리회원 20여명이 동참해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상송삼거리에서 고로방향 주변 도로 등 잡풀과 취빙쿨을 제거하는 등 자연환경보호에 구슬땀을 흘렸다. 황정욱 기자

어처구니없는 영천시 소통행정

결국 몸 따로 마음 따로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명분으로 개설한 영천시의 스마트밴드(BAND)가 개설 4개월이 지났는데도 크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각종 행사나 축제 등 안내를 위한 대시민 소통 창구 일환으로 각 읍면동별로 개별적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BAND 16개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4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 당초 영천시의 목적과는 반대로 회원수도 크게 늘지 않았고 게시글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어서 다시 한 번 고삐를 조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천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111' 운동(1인1계정 갖기, 하루한개 이상씩 '좋아요', '공유', '댓글달기' 운동) 까지 펼쳐가며 시민과의 소통에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연일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지난 10일 현재 밴드별 회원수 변화를 살펴보면, 남부동이 122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화산면이 당초 52명에서 103명(▲51)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임고면이 18명에서 47명(▲29), 중앙동 44명에서 63명(▲19), 청통면 22명에서 35명(▲13), 고경면 68명에서 80명(▲12)이다. 또 금호읍 38명에서 47명(▲9), 서부동 25명에서 29명(▲4), 완산동이 20명에서 23명(▲3)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신녕면은 오히려 당초 53명에서 45명(▼8)으로 줄어들어 당초 53명에서 45명(▼8)으로 줄어 활성화되고 있다는 영천시의 자체 평



가와는 상반된다.

또 16개 읍·면·동 16개 밴드 총 회원수도 전체가 약 800여명 뿐이고 밴드 개당 평균 회원수가 50여명에 그쳐 '1111' 운동이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양면, 대창면, 동부동은 밴드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지는 당초 밴드 개설 당시(지난 3월) "사전 준비 없이 너무 서둘러 개설한 탓에 일부는 접속자체가 어려운가 하면 일부는 검색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며 밴드개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밴드 개설 당시 시 관계자는 "초기에 매끄럽지 못한 면은 있으나 밴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 상대적으로 체류시간이 길고 몰입도가 높아 스마트폰의 장점과 결합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민들의 쌍방향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며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었다.

지난 6월 제1기 영천시스타SNS서포터즈 발대식까지 가진 영천시가 각 부서별로 홍보요원을 지정해 시정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여서 다시한번 재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황정욱 기자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해단식 개최

대회 종료 3개월 8일만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해단식이 체전 종료 3개월 8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시청대회의실에서 도민체육유공자 표창식 전달식과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영천시장과 김순화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임원, 체전 추진위원, 후원회원 체전유공자 등 참석자는 모두 200여명이다.

이번 체전 유공자 단체표창은 상공회의소(회장 송재열)의 11개

단체가 도시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표창은 영동중학교 이상훈 교사와 27명이 도시사 표창을 받았다. 또 JM에드 정종식 대표의 39명이 도체육회장 표창, 신대리 차윤태 이장의 32명이 영천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모두 113명이 체전 유공표창을 받았다.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영천시는 배구, 태권도가 종합 1위, 유도 종합 2위, 검도 종합 3위, 레슬링 종합 4위, 축구, 테니스, 복싱, 롤러 종합 5위 등 전체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고 이날 해단했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도민체전의 성공으로 우리 영천시의 위상이 올라갔다.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었던 건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구슬땀을 흘린 한분 한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천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화 시의회의장도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및 임원 등 선수단에게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후원에 힘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손흔익 기자

영천축협 2017년 전이용대회 성황

2017년 영천축협조합(조합장 정동채) 전이용대회가 1천여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11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김태환 농협중앙회 축산대표이사를 비롯해 이만희 의원, 김영석 시장, 김순화 의장 및 각 시도의원과 기관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열기를 더했다.

향교야야향 봉사단의 민요, 가

야금, 무용 등 화려한 식전행사에 이어 정동채 조합장은 본 행사에 앞서 영천시장학회 김영석 이사장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 인재양성에 힘을 보탰다.

정동채 조합장은 대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조합발전을 위해 힘써준 조합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조합장은 "우리 조합이 중앙회의 총화상과 여러 차례 도시형축협 최우수상을

받는 국내 상위 최우수 모범조합으로 우뚝 섰다"면서 "영천축협 조합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전이용부인과 구매, 판매, 지도 등에서 구자준 조합원 외 6명에게 유공조합원표창, 금호축산작목회 한일만 조합원 외 1명에게 우수작목표창, 본점 총무과 박영진직원 외 4명에게 우수직원 표창을 포함해 46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지수 기자



화북면민 복지회관 제2017-1호

공개입찰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건명	보증금	임대료(사용료)	계약기간	이용금액	비고
화북면민 복지회관(목욕탕) 사용계약	2,000,000원	입찰 최고금액	2017.9.1~2019.6.30(22개월)	■ 일반 3,000원, ■ 초·중·고학생 1,000원	

2. 입찰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17. 8. 3. 09:00 ~ 2017. 8. 17.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3.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자격증 또는 수료증사본 1부.

4.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7. 8. 18.(금) 15:00 ~16:00 ⇒ 설명회 : 2017. 8. 18.(금) 14:00(화북면사무실 2층 회의실)
나. 장 소 : 화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8. 18.(금) 16:00 위 입찰장소에서 개찰

6. 입찰 참가자격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수료증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고액 입찰자
나. 낙찰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추첨일시 및 장소 : 낙찰종료 시 위 개찰장소

8. 입찰자는 입찰자의 기재에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복지회관(목욕탕) 공개입찰 참가자 준수사항 및 사용계약서(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 준수사항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북면사무소(339-7411)로 문의 바람.

2017. 8. 2.

화북면민복지회관운영위원장



서부동,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주체 드러나

사업성공 다짐한 정동일 위원장과 강이연 부위원장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확정된 지역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서부동과 중앙동 일부)이 사업확정 10개월여 만에 주민 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영천시는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인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영천시 서부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협의회 구성회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서부동, 중앙동에서 추천된 민간인 30명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16명(서부동 12, 중앙동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실시된 주민협의회 구성회의에서 16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해 참석자 전원 동의로 정동일 '희망영천시민포럼' 대

표와 강이연 서부동 부녀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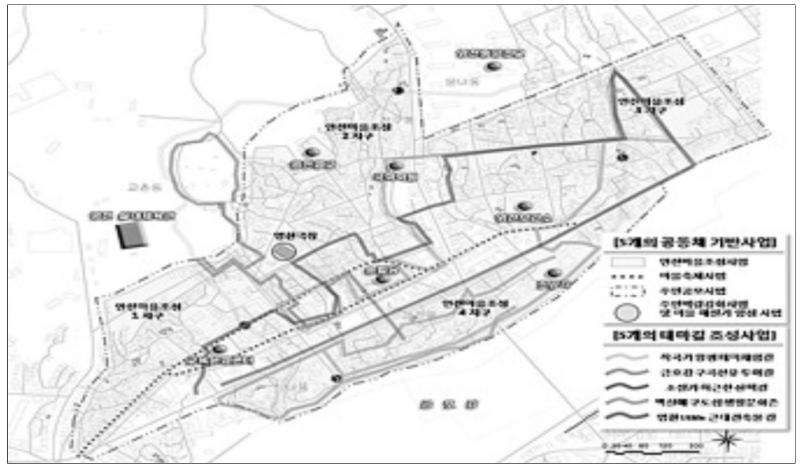
정동일 위원장은 "위원들 개인의 역량을 모으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이연 부위원장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참여했다. 서로 도와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지역

촌동, 성내동)으로 사업 면적은 약 530,000㎡이다.

2016년 공모 신청 시 기본구상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60억원 중 물리적 사업(왕릉 테마 체험길 12억원, 금호강 구곡선유 투어길 8억5천만원, 소설가 하근찬 산책길 10억1천만원, 백신에 생활 문화존 14억원, '193' 근대 근축물길 5억5천만원)이 50억1천만원, 프로그램 사업(공공체 기반사업)이 9억9천만원이다.

손훈의 기자



한승훈 소방행정자문단장 휴가지 119시민수상구조대 격려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지난 9일 한승훈 소방행정자문단장 외 10여명과 함께 임고강변에서 행락지

시민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지난달 1일부터 활동 중인 영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8월 말까지 임고강변공원 등 관내 3개소에서 인명구조, 위험요소 제거, 응급처치 및 예방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ZERO)에 도전하고 있는 영천소방서 이상무 서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훈 단장도 "휴가철인데도 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연일 무더위와 싸우며 봉사활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황정욱 기자

김영석 시장, 물놀이 안전 지역현장 직접 챙겨



김영석 시장이 휴가철 및 방학기간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행락객들이 절정을 이룬 지난달 30일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등지를 찾아 직접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근무실태, 구명도구 비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조남월 영천시 부시장도 지난 4일 주요 행락지를 직접 다니며 안전시설 점검에 나서는데 각별히 정성을 쏟고 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 전인 지난 5월에는 물놀이 안전지킴이 및 읍·면·동 물놀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해 사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영천시 전직원은 신령 치산관광지, 임고 곱들덤편, 임고강변공원, 영천

댐공원, 고경 단포교 주요 행락지별로 조를 짜 안전예방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임고강변공원에서 영천소방서, 영천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피서객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가졌다.

김 시장은 또 영천을 찾은 행락객들의 불편함을 챙기며 의견을 청취하고, "영천시는 8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ZERO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그 명성에 맞게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영천으로 많이 놀러와 달라"고 당부했다.

황정욱 기자

'장애가정청소년 성장-멘토링사업' 실시

우리두리캠프로 한 뼘 성장!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허의행)은 우체국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2017년 장애가정청소년성장-멘토링'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장애가정 초등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멘티와 1:1로 결연돼 있는 대학생 멘토들

이 학습지원 및 문화활동, 학교생활 지원 등을 실시하고 그밖에도 멘티의 건강검진과 상담, 교재구입, 멘티 부모상담 및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방학기간을 맞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멘티, 멘토 16명이 경남 고성 공룡박물관 탐방 및 남해안 갯벌체험을 다녀왔다.

멘티와 멘토들은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고 바닷가 물놀이와 갯벌체험을 통해 자연의 신

비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멘티와 멘토는 한 가족이 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장애가정청소년 '성장-멘토링' 사업은 우체국공익재단으로부터 연간 1,200만원을 지원받아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캠프를 마치고 한 뼘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온 멘티와 멘토를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기 기자

몰카범죄 증가율, 노인과 공무원이 가장 높아 이만희 의원, "공직기강 확립위한 특단 대책 강구해야"

몰카 범죄자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그 증가폭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과 공무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져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몰카 범죄자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824명에서 2014년 2,905명,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자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몰카 범죄자를 연령별 분포는 26세~30세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35세 730명, 21세~25세 678명, 19세미만(소년범)이 601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71세 이상 노인이 2012년 3명에서 2016년 15명으로 최근 5년간 5배로 가장 많이 급증했다. 65세~70세 3.6배, 19세미만(소년범)이 3.3배 순으

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및 노인의 몰카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3명에서 2016년 46명으로 최근 5년간 3.5배로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2.4배, 자영업 2배 순으로 조사돼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불 꺼진 망향공원, 관광객 거부하나?

벚꽃 4월과 단풍가을, 물안개 피는 여름은 불 켜야!

영천댐 주변은 청정지역인 만큼 경관도 수려하다. 봄과 가을에는 벚꽃과 단풍으로 나름 댐 일주도로가 운치를 더해준다. 때문에 영천의 관광명승지라도 손색없는 장소.

하지만 물안개 피어나는 여름철 댐 일주도로의 밤 야경은 그리 녹녹치 않다.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망향공원의 불 꺼진 조명 탓 때문이다. 지나는 관광객마다 “이렇게 불 끄고 방치할 것 같으면 조명시설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한마디씩 깊은 댐 속으로 던지고 지나간다.

영천시는 자양면 성곡리 자양면사무소 근처에 1980년 영천댐 준공과 함께 수몰지역 이주민과 지역민의 향수를 달래고 주변지역을 관광 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4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 12월 망향공원을 준공했다. 규모도 4,776㎡의 대지에 건축면적은 459㎡의 크기로 댐의 아름다운 수변 조망과 전시관을 두고 외부에는 화려한 조명설치로 야간에는 주변 수변과 조각 작품들이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자양면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전 차원에서 야간 조명을 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야간에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

객들과 지역 주민들 까지 이곳 망향정에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양면 주민 A씨에 따르면 “망향공원에 분명히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 전에 시운전을 위해 야간에 조명을 켜자 멋진 야경이 연출됐다”며 “준공 후 야간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지난 6일 현재 영천댐 망향공원 전시관은 주 5일(월, 화, 목, 금, 토)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야간에는 조명이 꺼져있어 주변이 매우 스산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련 공무원은 “야간에 이용객이 거의 없어 전기요금 부담 등 비효율적 측면이 있어 야간조명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알 수 없는 답변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준공 후 이 조명



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행정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영천시가 무슨 건물이던지 만들어만 두고 사후 관리는 내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안이한 행정당국을 원망했다.

불 꺼진 망향정에 대해 본지에 전화를 걸어온 주민들과 일부 관광객들도 “겨울철에는 전기를 아끼더라도 벚꽃이 피는 4월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 또 단풍철에는 밤 10시까지 만이라도 조명을 밝혀 당초의 설치 취지를 살려 공원 주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되살려 달라”고 주문했다.

본지가 이같은 관광객의 사연을 들어 지

난 7일 해당 면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면장 등 담당 직원과 조명 재가동을 상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관광객이 줄었다고, 또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손님 기다리기를 포기해서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 비록 전기요금이 들어가더라도 당초 취지를 살려 단 한명의 사람이라도 모이게 하는 영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 된다. 내일 밤은 물안개 피는 영천댐 망향정의 아름다운 야간 운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손훈익 기자

경북도,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하위 등급

경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국고보조사업,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주요시책 등 추진성과 평가에서 전국 9개 도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30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참여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를 가,나,다)등급 기준으로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전국 9개 도 중 가)등급 8개 분야, 나)등급 1개 분야로 가장 성적이 우

수했다. 경북은 지역개발 분야만 가)등급 이고 문화가족 및 중점과제 나)등급을 제외하고는 일반행정, 안전관리,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나머지 전 분야에서 모두 다)등급을 받아 강원·전북에 이어 가장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한해 전국 9개 도 중 국가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120명을 합동평가단으로 구성돼 시·도간 상호검증(열람 및 이의신청)과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평가위원 합동 실적 검증을 통한 평가”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에서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 1월부터 6개월간 지방행정평가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 결과”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해 우수시책이 타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장지수 기자

2017 을지연습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성공적인 을지연습 위해

영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을지연습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로 5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준비보고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2017을지연습에 대비했다. 부서별 준비사항과 지난해 을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 조치결과에 대한 개선 방향을 토의하는 등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주요시설에 대한 최근 테러 양상에 따른 대응훈련과 각종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주민참여 체험 교육 훈련도 병행한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조남월 부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전시 훈련이 돼 유사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에 전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댐 ‘삼귀교’ 통행금지, 삼귀 등 15km 돌아야

영농농가 유류비용도 늘어나 대책 필요



영천댐(자양댐)을 가로질러 용산리에서 삼귀리로 들어가는 삼귀교가 지난 8일부터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됐다. 영천시는 ‘용산-삼귀간 도로확 · 포장공

사’와 관련해 삼귀교량 성능 개량공사(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가능)의 상부 슬래브 보강사 공사(포장포함) 시행으로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4일간 삼귀교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자양면사무소 주변과 용산리, 충효리 주변 주민들이 삼귀리를 들어가려면 통제기간 동안 영천댐 공원(카라반 야영장)까지 약15km~20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부 주민들은 이번 교량통제로 유류비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반대로 삼귀리 노항, 삼귀, 신방 지역 주민들 역시 자양면사무소에 민원을 보기위해서는 역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영천댐 입구 댐공원 야영장 삼거리(삼매교)에서 삼귀리를 경유해 삼귀교(통제교량)를 통과할 차량들이 입구에서 안내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다시 되돌아 나와야하는 불편함이 예상돼 당국의 교통통제 안내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귀교 교통통제 홍보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는 인근 도로에 안내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양면사무소에 공사안내문을 비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자양면과 공사업체 역시 해당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해당 공사와 관련해 공사안내 표지판 미설치로 영천댐공원에서 상수도사업소 방향으로 삼귀교를 이용하려던 차량이 20km를 되돌아 나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당국의 세심한 안내가 요구된다.

이같은 교량 통제와 관련해 본지 기자가 지난 4일 현장을 방문하자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주민들과 삼귀교를 이용하시는 차량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산-삼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58억여원을 들여 보도교배제, 도로선형개량(L=0.8km) 공사로 오는 2019년 9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다.

손훈익 기자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임란이후 영천의 역사

'영천복성전투 그 이후 영천' 기획 전시



쌍지총통



영양도

영천시와 영천역사문화박물관(옹화사 지봉스님)은 임진왜란 425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영천시민회관 스타갤러리에서 '영천복성전투, 그 이후 영천'이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든 임진왜란의 실상을 재조명하며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빠른 조선 정벌 속에서 영천의 지역민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 전국 최초로 영천성을 되찾음으로써 힘이 빠져



포은선생문집

가는 구국의 의지에 도화선 역할을 했음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더불어 가족과 고향을 지키고자 이를 없이 희생한 3,000여명의 무명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607년 영천군수 황여일이 간행한 '포은선생문집' 초간 완질본, 영천군수 박안효가 편찬한 '계축증광사마방목', 삼운통고 가운데 기년 이 있는 가장 빠른 운서(韻書)로 1641년에 영천군수 변복일이 간행한 '삼운통고', 그리고 생활 구황의 서로 1654년 영천군수 이구가 간행한 '벽운신방·구황촬요' 등 희귀본이 전시돼 임란 이후의 영천의 변화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담 선생의 기록을 중심으로 화가들이 손으로 일일이 그려 재현한 '영천복

성전투도'가 최초로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전시는 '영천역사문화박물관을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준비과정을 돕거나 전시회 기간동안 도우미로 동참하면서 지역애와 바른 시민정신을 실천하게 되는 이른바 '영천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전시회'로 더욱 뜻깊다.

지봉스님은 "이번 전시회에는 17세기 초 경주진에서 간행했으나 문헌에서만 존재한 '병학지남(兵學指南)'이 최초로 선보이고 영천에서 간행됐으나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문화재급의 유일본들이 처음으로 소개되니 질적인 면에서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운영

자원봉사 캠프 통한 SDGs/ 육지생태계 탐구 및 실천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조녹현)는 지난 3일과 4일 청송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연수원에서 2017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실시했다. 캠프에는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리더 40명이 참여했다.

캠프 첫날에는 '청소년 숲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조별활동과 육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천의식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둘째 날은 자원봉사기본 소양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및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인 인식제고와 더불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상훈 온시디움봉사단 회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자원봉사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조녹현 소장은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원봉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 캠프는 2017 경북도 자원봉사 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고령, 의성, 청송지역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SDGs : Sustainable(지속가능한) Development(발전) Goals(목표17가지). SDGs는 2030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목표로 2015년 종료된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확대·발전된 목표라

할 수 있다. 제70회 UN총회에서 193개 참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17개의 목표와 169개 과제가 있다.

이용기 기자

한국 육상, 중·장거리 차세대 기대주 영동중 이재웅군

지금 영천은 육상부문 사상 최고 성적 기록 중



향후 10~20년 동안 한국 육상 중·장거리를 책임질 기대주가 영천에서 탄생했다. 바로 영천 영동중학교(교장 임상현) 이재웅 선수. 이 선수는 현재 연일 전국 언론의 스포터

를 받고 있는 중이다. 중 2학년부터 육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재웅 선수는 최근 각종 전국대회 우승을 독차지하는 등 청소년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 되면

서 전국 육상 명문 고등학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스카우트의를 받아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지난 9일에도 이 선수는 충북 보은에서 개최되는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 참가를 위해 대회장으로 향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5월 28일 충남지역 일대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육상에서도 이재웅 선수는 남중부 3000m에서 9분08초35로 금메달을 땀과 전날 1천500m에 이어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 찬사를 받았다.

이 선수의 주 종목은 1500m와 3000m다. 이 선수는 이달 8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한국전력배 전국 중·고등학교 중·장거리 육상경기대회에서도 남중부 800m와 3000m에서 각각1위를 차지해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이 군은 1500m종목이 없어 800m와 3000m종목에서만



2관왕을 또다시 누아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전국대회에서 연이은 2관왕이다.

이같이 이 군이 전국소년체전과 KBS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독보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보이자 한국 육상 중·장거리 주축 선수로 수많은 육상 전문가들

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덩달아 최우수지도 감독상을 수상하게 된 영동중학교 육상부 조문희 감독은 "재웅이는 국내 중학교 선수 중 랭킹 1위다. 육상 선수로서의 자질이 좋다. 특히 승부욕, 지구력이 뛰어나 중·장거리 종목에 적합한 선수"라며 "앞으로 한국 육상 중·장거리 종목을 이끌어갈 자랑스런 제자이자 선수"라며 이재웅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 감독은 또 "전국의 많은 육상 명문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군의 한국 육상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현재 이군의 육상 성적 때문에 영천은 육상부문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손흔익 기자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형 스포츠 아세요”

동호인 늘고 있는 ‘파크골프’

“요즘 영천에 동호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최근 영천에 파크골프 동호인이 크게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영천시파크골프연합회(협회장 정용준)는 “요즘 영천에 동호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라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영천시장기파크골프대회를 앞두고 본회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크골프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 파크골프! 어떤 운동인가?

파크골프는 ‘PARK(공원) + GOLF(골프)’의 합성어다.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유사골프경기다. 골프의 게임 요소가 포함된 스포츠로도 도심 근교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녹지공원에서 치는 골프놀이로 보면된다. 특정 의복과 장비 또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강하게 휘둘러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장타’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한마디로 자연에서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운동경기다.

◆ 파크골프 역사?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홋카이도에는 6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본에는 약 1,050개의 파크골프장에서 150만 동호인이 즐기고 있다. 하와이, 호주, 중국, 미주 등에서도 저변 확대가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보광휘닉스파크와 진주 노인복지회관에서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이 시작으로 2004년 5월 한강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목포시를 비롯한 고양, 진해, 대구, 밀양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전국에 12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다.

2013년 9월 ‘파크골프 비전 선포식’을 통해 현재 전국에 13만여명의 동호인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경북도에는 2,500여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영천에는 2014년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동호인이 확대됐다. 또 오수동에 임시로 조성한 18홀 파크골프구장에서만 190여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파크골프연합회에는 장애인 클럽 포함 총 6개의 클럽(한마음, 스타, 문화, 시민, 길벗)에 약 200여명 가까운 동호인들이 본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6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



해 영천시 조교동 장천길 156번지(조교동 54-2) 일원 강변에 11억 여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해 본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 파크골프 경기 방식?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다. 출발지점(티오프)에서 홀(hole)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코스를 돈다.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볼을 넣는 방식이 골프와 거의 같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하며, 게임 당 18홀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적다.

공의 규격은 합성수지로 내부를 채운 직경 6cm의 둥근 공을 쓰며 무게는 94g이다.

골프 채(클럽)의 길이 85cm, 무게550g이며, 클럽의 헤드는 나무로 만든다. 클럽에는 로프트(클럽과 페이스가 이루는 각도)가 전혀 없어 뜨거나 날아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파크골프연합회 관계자는 파크골프에는 다음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것으로 보고 있다. ▲ 배우기 쉽고 ▲공 치기(퍼팅)이 가볍다. ▲ 비용이 적게 들며 ▲ 신체에 무리가 안 된다. ▲ 자연과 가까워 ▲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에 이롭다. ▲ 도시근교에 있어 쉽게 찾아 갈 수 있고 ▲ 가족과 함께 3대가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파크골프장 주변은 경기장과 함께 경치가 아름답다.

손훈익 기자



꿈을 향한 도전 조국을 위한 도약! 육군3사관생도, 500m 상공에서 공중강하훈련



육군3사관학교 3학년 생도 500여 명이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특수전학교에서 3주간의 공수훈련을 마무리하는 공중강하훈련을 실시했

다. 이번 공수훈련은 정신적·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필코 임무를 완수해내겠

다는 강한 자신감과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며 2주간의 지상훈련과 기구강하까지 마친 54기 사관생도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공중강하를 위해 치누크(CH-47)에 탑승한 생도들은 훈련받은 대로 일사분란하게 강하를 준비하고는 강하조장의 ‘뛰어’라는 구령 소리에 500m 상공에서 일말의 망설임 없이 푸른 창공으로 힘차게 도약했다.

생애 첫 비행에 성공한 최성아 생도는 “목숨을 건 첫 임무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반드시 해내는 멋진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54기 사관생도들은 훈련기간 동안 총 4회의 공중강하를 통해 공수 기본 강하자격을 획득하고 자랑스러운 공수회장을 가슴에 부착하게 된다.

이용기 기자



학교폭력 없는 세상 함께 그려요 영천여고, 학교폭력예방 벽화그리기 실시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이동걸) 경찰동아리 CSP 학생 10여명은 지난 2일부터 4일간 본교 등굣길 옆 벽면에 학교폭력예방 벽화그리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벽화그리기 활동에는 영천경찰서의 협조로 경찰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과 범죄를 예방하는 창작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영천여고 경찰동아리 'CSP'는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경찰진로 탐색은 물론 학교폭력예방과 학내질서유지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벽화그리기 활동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와 함께 학교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며 경찰동아리 학생들이 자원해 시작했다. 경찰동아리 학생들은 방학중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더 나은 학교환경 구축과 학교폭력예방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며 벽화그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심민경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도 성실하게 벽화그리기 활동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의논하며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성적인 태도에 감동 받았다"고 전했다.

이동걸 교장은 "학생들의 꿈이 학교 벽면에 아름답게 그려진 것이 매우 흐뭇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



정적으로 활동한 경찰동아리 학생들이 기특하다. 앞으로도 영천여고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서울대 간 영천인재양성원, 학력신장 높인다 대학생활경험, 선배들과 소통의 시간

영천시인재양성원 중·고생 27명과 인솔 교사 등 30여명이 지난 4일 학력신장사업 일환으로 명문대(서울대)탐방에 나섰다. 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가 7일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오전 8시 30분 영천을 출발해 하루 종일 미래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상상하며 서울대를 속속들이 둘러보고 밤 10시까지 돌아왔다.

이번 탐방에서 학생들은 캠퍼스 투어, 미션 해결 등 다양한 대학생활 경험과 재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선배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서울대 탐방에서는 지난해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환 학생 외 서울대생 5명이 학교 안내를

맡았다. 이들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경영학, 심리학 등 전공분야 학생들로 방문한 후배 학생들에게 서울대의 생활한 생활담과 진학관련 노하우, 수험생 시간 활용법 등을 전하며 멘토링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구다운 학생은 "영천 출신의 선배님을 만나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평소 진학을 희망하던 분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았다"며 탐방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천시장학회는 1년에 1회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재양성원 중·고학생들을 중심으로 미래 진로를 다지기 위한 명문대 탐방체험을 실시해 학생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황정욱 기자

2017 여름방학 자아 존중 캠프 실시

중앙초, '말랑미랑 내 마음'

영천중앙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0일 본교 전문상담교사 박서연 교사의 지도로 '말랑말랑 내 마음' 자아 존중 캠프를 운영했다.

중앙초는 자아 존중 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나를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집단 놀이활동을 통해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래포형성게임, 참 소중하 나, 동굴 속 열쇠 찾기, 드림캐쳐만들기, 함께 나누는 간식 시간 등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이 자기 탐색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 미래상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동굴 속 열쇠 찾기 활동은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고 짝과 함께 서로 협동해 미션을 완수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이용기 기자



호산대, 경북도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

호산대(총장 박소경)가 최근 경북도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됐다고 학교 측이 8일 밝혔다.

호산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간호학과와 물리치료과 및 노인보건복지과 학생 71명으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과 치매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치매예방과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호산대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또 치매 선별검

사 및 인지향상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치매 보듬마을 어르신과 일손을 맺어 건강 돌봐드리기와 전화 안부 여쭙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치매극복 사업에 신경을 쏟고 있다.

김재현 호산대 부총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은 물론 치매 친화적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욱 기자



나만의 차별화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 운영 영천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영천고등학교(교장 이우경)는 서울대 재학생 강사 4명을 초빙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 9일 재학생 1학년~3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학입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로 특히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돼 재학생들에게는 실제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표현하고 작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또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

해 온 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컨설팅에 참여한 3학년 민영은 학생은 "나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표현하는 방법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용기 기자



길 위의 인문학 강연&콘서트 성황리 운영

영천금호도서관

경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관장 김미경)은 제2탄약창 군장병 18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제2차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콘서트를 실시했다.

'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영천금호공공도서관은 3년 연속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인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다.' 는 주제로 운영했다.

제2차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행사는 '어쩌다 군인! 인문학으로 사병 구하기' 라는 소주제로 4회 동안 강연, 콘서트, 후속모임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했다. 도서관에서는 '군인'이라는 젊은 청춘들에게 '인

문학'이라는 화두를 통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전했다.

한 참여자는 "이 프로그램은 20대 초반의 군인들에게 군 생활의 목표 한 가지를 내어주어 뜻깊은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용기 기자

무더위 피해 도서관으로 가자!

여름방학 맞이 매직그림자 레이저쇼 열려

영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2시, 4시 도서관 1층 지산홀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매직그림자 레이저쇼를 운영한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퓨전 공연으로 웅장한 음악과 함께 다채로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해 화려한 장면을 연출해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공연신청은 오는 9일부터 접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ycli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숙 인재양성과장은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날리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선정

내년도 FTA기금 사업비 78억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영천시가 경북도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비 30% 증액 및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게 돼 사업비 78여억원을 확보하고 시상금 5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연차평가 대상 선정으로 영천시의 대표적인 과수지원사업인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비가 내년도에 대폭 늘어나게 됐다. 과실 생산시설 기반구축을 통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천시는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과수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대상 선정은 사업을 추진한 행정과 농협 및

농업인 등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유통 규모화와 통합 마케팅 확대 등이 우수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으로 영천과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FTA기금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인 1등급 기관에 선정돼 올해에도 60억원을 투입해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등 주요 과수의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영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천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9,600건에 대한 7억4천 800만원(개인균등분 4억4천, 법인균등 1억4천, 개인사업장 균등 1억6천)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천800만원 이상 신고한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의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월남전에서 활약한 육군헬기(UH-1H) 전시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우동교)은 월남전에서 맹활약하고 1970~2000년대 우리육군의 주력

헬기였던 'UH-1H헬기'를 육군본부에 지속적 협조를 통해 지난 10일 호국원내 전투장비 전시장에 전시했다.

이날 전시된 UH-1H헬기는 우

리 육군이 1968년 8월 지휘 통제와 병력 수송을 위해 제21기동항공중대 창설과 함께 최초로 도입한 수송헬기이다.

영천호국원 전투장비 전시장에는 이번에 설치하는 UH-1H헬기를 포함, 6.25전쟁을 비롯해 60~70년대에 육군 및 공군에서 활약한 실제 전투장비인 나이키 미사일과 M-47패튼전차, F-86세이버전투기 등 8종 11점을 전시했다.

우동교 원장은 "국립묘지를 찾는 학생들과 참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보의식 함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활약한 육·해·공군의 다양한 전투장비를 확보·전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법무법인 율리 신용하 대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법률자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원장 권오승)과 법무법인 율리(신하용 대표 변호사)가 지난 2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신 자문변호사는 3년 동안 연구원 뿐 아니라 지역 기업체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 등 다양한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권오승 원장은 "기존 지역 기업체들에게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법률자문까지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

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07년 영천시 괴연동에 설립됐다. 국가 R&D 과제를 통한 기업공동 연구개발 지원 및 KOLAS 국제공인시험 기관으로서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위촉 법무법인 율리 신하용 대표 변호사는 대구계성고등,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업연수원 32기 연수 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황정욱 기자

!!

이 난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천신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개업인사, 영업홍보, 구인광고, 결혼, 축하, 행사 등을 알려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광고국 054)338-7100
010-7138-3340
FAX)054)335-6600
E-mail : lciyjg4@hanmail.net

북안종합건설(주)
건축자재전문기업
예림도어/몰딩/마루/사시/합판
목재/방부목/싱글/사이딩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973
☎ 054) 333 - 7025

타일시공
타일시공 · 욕실수리전문

박봉환 010-4870-9686

계좌번호 : 농협 758-12-122338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박종석 011-521-0006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미스터 플라워
전국 꽃 배달서비스

신정희 010-3554-3726

영천시 금왕로 81-1(완산동)
☎ 054) 333 - 8877

(주)부국전력·소방
면허 제1025호
(소방공사업/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정기 010-2804-7951

영천시 아사동 119-12번지
☎ 054) 332 - 7282

세원인력개발
인력모집/수목관리/집수리
청소철거/폐기물/토목

박석암 010-4511-9525

☎ 054) 332 - 9525

삼송꾼만두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동환 010-8852-8806

☎ 054) 333 - 8806

일신종합상사
납품전문업체

금형공구/금형표준부품
금형소모품 및 밀핀기공

영천시 영천신단로 347-17(채신동)
☎ 054) 337 - 0984



이만희 국회의원 여름휴가 대신 농가 일손돕기 출동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여름휴가 기간 동안 지역농가 일손을 돕기에 나섰다.

지난 4일 가진 봉사활동에는 김수용 도의원, 이상근 시의원, 박영환 전의원, 정연화 문화원장 등 자유한국당 영천지역봉사단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지역농가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고경면 이모씨 복숭아 농장을 찾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복숭아 수확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영천 도매시장과 능금·농협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오후에는 화남면 정 모씨 자두농장에서 자두 수확을 하는 등 이번 여름

휴가를 지역농가 일손돕기에 시간을 보냈다.

고온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 의원은 복숭아밭과 자두밭 농가를 직접 방문해 땀을 흠뻑 적시며 과일을 수확하는 체험과 함께 농사철 지역농가 일손부족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만희 의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농민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농민들의 위한 다양한 정책입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더 큰 나라사랑 실천은 태극기 게양부터!

완산동 새마을부녀회 태극기 기증



완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 외자)는 지난 8일 '태극기 기증과 태극기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태극기 기증 행사는 영천상권의 중심지 완산동에 소재한 '윤창 APT' 단지 내에 태극기가 없는 40여 가구에 전달했다. 폭염속에서도 발품을 팔아가며 오는 15일 광복절에 시장로 모든 상가에서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홍보 캠페인도 했다.

윤치희 완산동장은 "역사적으

로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한 영천인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호국안보 관광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태극기 게양부터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집과 상가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을 위해 전개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용기 기자

무더위에도 화재안전 함께 지켜요!

대창면 S-에 영천저유소, 소화기 전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한줄기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3일 대창면 사리2리 소재 S-oil 영천저유소(소장 신동일)는 사리2리 마을(이장 백원찬)에 가정용 소화기 50대를 전달했다.

2017년 2월부터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때 이번엔 전달한 소화기는 각 가정에 꼭 비치해야 할 필수용품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병용 금호119안전센터장 및 직원들이 나와 소화기 사용법은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

시했다. 주민들은 "위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S-oil 영천저유소는 지난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뿐 아니라 경로당에서 저유소 진입로까지 풀베기 작업 등 지역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사리2리 마을도 품질 좋은 복숭아를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황정국 기자





**산지에서 직송한 싱싱한 활어와
향촌이 직접 개발한 특별소스로
향촌만의 특별한 맛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메뉴★

향촌물회 : 11,000원

초밥 : 13,000원

회덮밥 : 12,000원

향촌물회 전문점 ☎054)334-7334





사설

젯밥에만 관심... 행정은 뒷전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영천은 3선으로 물러나는 김영석 영천시장이 경북도지사에 도전하고 있고, 두 서기관이 각각 김시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목이다. 모두 현직 공직자 신분이다.

그런데 이들 공직자들이 행정은 돌보지 않고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젯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부실행정의 징후가 여기저기 노출되고 있는데다 공직의 수장으로서 서연치 못한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폭염을 대비해 시민들의 보행건강을 돕는다며 설치한 그늘막은 철 지난 가을에 설치하는 꼴로 진작에 설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늦게라도 설치한 그늘막조차 오히려 그늘막이 그늘에 쉬는 형국이어서 진정성 없는 행정이라며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뿐만 아니다. 금호강 강변공원 일부산책로는 잡풀과 우거진 숲 때문에 우범지대로 변해 주민들이 보행

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도 행정은 나 몰라라. 게다가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하겠다며 설치한 행정SNS(밴드)는 요란한 홍보와는 반대로 거미줄을 쳐도 누구하나 스스로 지적하는 관리자조차 없다.

한마디로 젯밥(선거)에만 신경을 쓴느라 행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신경을 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더 옳다.

예산 편성과 집행도 엉망이라는 원망까지 일고 있다. 최근에는 각 경로당리모델링 비용이 크기와 면적,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1곳당 8천만원으로 4곳에 3억2천만원을 일률적으로 편성·집행한 여처구니없는 일이 확인됐다. 또 신령에 세우는 '유림재현관' 건립(예산 15억)은 지역 유림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특정인의 업적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집행, 엉터리 공사, 쌓여만 가는 민원 거기다가 눈에 흔히 보이는 엉터리 과대홍보 등 시민들의 불신 행정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뒤로하고 오직 자신들의 선거만을 위해 공직기강까지 해이해 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본인들은 열심히 행정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지만 한마디로 시민들의 눈에는 세금 낭비로 비칠 뿐이다.

선출직에 나아가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젯밥에서 한발 물러섬이 마땅하다. 시민을 바로로 알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선거를 위해 만든 위장 밴드로 시민들을 속여서도 안 된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밴드에서 강퇴시키는 부도덕함은 더욱 아니다. 행정은 돌보지 않고 과대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알파람도 지적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부하직원들이 선출직에 나아가는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몰아세워서도 안된다. 더 이상 행정을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일 수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해서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도 가슴에 새겨두길 바란다.

이용기 기자

★이태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이벤! 이견 우에 되요?>



샐러드 먹다가 돌을 씹어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고객도 과실이 있을까?

김갑동은 주말을 맞아 식구들을 데리고 소문난 맛집에 들러 외식을 하였다.

맛집은 콩을 주 재료로 한 건강식으로 유명한 집이었는데,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의 전체요리로 나오는 샐러드도 유명한 집이었다.

김갑동은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주문하고 먼저 전체요리로 나오는 샐러드를 맞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고 호기롭게 씹었는데, 아빨싸. 샐러드에 사용된 야채에 돌이 섞여 있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야채를 씹던 김씨는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입고 말았다.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기분 좋게 외식을 하러 갔다가 어금니 2개가 부러져 이를 받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했던 김씨.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되는 책임제한 법리, 즉 고객측의 과실상계도 적용이 될까?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식당은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조리된 음식을 손님에게 판매합니다. 손님은 식당 주인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별하여 정성을 담아 조리해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하게 되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손님은 그 안에 독이 들었다, 이물질이 들었다, 건강하지 않은 재료가 들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며 섭취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만큼 고객과 식당 주인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먹을 것 가지고 장난 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김갑동씨가 찾은 식당은 건강식을 판매하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입니다. 어느 손님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먹으면서 그 안에 돌이 들어 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갑동씨 또한 마찬가지로였을 것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 3분설이라 하여, ①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등 직접 자신이 지출해야 했던 손해, ② 소극적 손해 -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 ③ 정신적 손해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안에서 김씨는 임플란트 등 시술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또 치료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고객측의 과실을 관념적으로 측정하여 총 손해배상 금액에서 몇 % 비율로 손해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책임제한 주장이라 하고, 위 사안에서도 식당주인은 '고객이 돌이 나올지도 모르니 주의를 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관련 사례에서 법원은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고객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전혀 없다'고 판시하여, 사례에서는 책임제한을, 즉 손님에게는 과실이 단 1%도 없어 100%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5682 판결 참조).

먹을거리는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불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벤! 이견 우에 되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746-0088, Fax746-0137
thyune@hanmail.net

경북도-영국정부와 자율주행차 노하우 공유한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대응 4차 산업혁명 선도

경북도는 영국정부와 자율주행의 주요 기술인 차량개발, 고정밀 지도, 안전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마크 가니어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경북IT융합기술원)-영국정부(웨스트필드 스포츠키) 간의 '자율주행차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자율주행차량, 고정밀 맵 등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보험 등 제도적인 노하우까지 공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분야의 강국으로

이미 한해 7,500만명이 이용하는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차 울트라포드를 300만km 이상 운행해 본 경험이 있다. 또 지난해부터 영국 런던 그리니치에서 자율주행차 해리를 1년 이상 무사고 운행 실증 중이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총아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IOT, 5G 등 주요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연평균 29%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상용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2035년에는 전체차량 중 자율주행차량의 비중이 75%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원인의 90%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자율주행

차가 도입되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50% 감소하고 연간 5,0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대 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차의 선진국인 영국과 협력해 자율주행차 도입을 준비해 왔다.

먼저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운행 노하우를 축적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한-영 공동개발 과제를 추진해 자율주행차 제조업까지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규정과 체계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 맞게 도입해 아직 태동기에 있는 국내 자율주행차의 안전 규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기 기자

“독도 침탈 야욕 日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일본 방위백서 13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경북도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2017년도 방위백서’ 발표에 대응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

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용기 기자

날씨어때

☀️	11일 구름조금 23°C ~ 31°C	☁️	12일 구름조금 21°C ~ 30°C
☀️	13일 구름조금 20°C ~ 30°C	☁️	14일 구름조금 21°C ~ 28°C

**우리지역
우리신문 영천신문**

등록일자: 201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경북 도01416

발행인: 박중운 편집인: 이용기 인쇄인: (주)중앙일보
취재부: 338-7100 광고부: 332-2400 FAX: 335-6600
구독료: 1년 4만원, 3개월 1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아사동 보목2길 3
E-mail: licjy4@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영천인근
최대규모
대단지

영천 햇빛촌마을

전원주택

부지
분양

전용산책로까지 **3**분! 영천시청까지 **6**분! 이마트까지 **9**분!

분양 위치 | 경북 영천시 오마동 산 120-15번지 일대
분양사무실 | 문내동 3-23 (영천중학교 앞)

분양문의 | 054) **331-0085**